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16

2019.11.10

2019년 주님의교회 포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_ 다니엘 12:3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2면 | 성서칼럼 돌부리 |
| 3면 | 교회소식 |
| 4면 | 어와나 소식 |
| 5면 | 영화로 성경읽기 |
| 6면 | 알립니다 |

교회일정

- 11/17(주일) 정기당회/결혼예비학교 개강
- 11/27(수) 겨자씨인도자교육 종강
- 11/29(금) 겨자씨모임 종강
- 12/1(주일) 대림절 시작
- 12/4(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 12/8(주일) 정기당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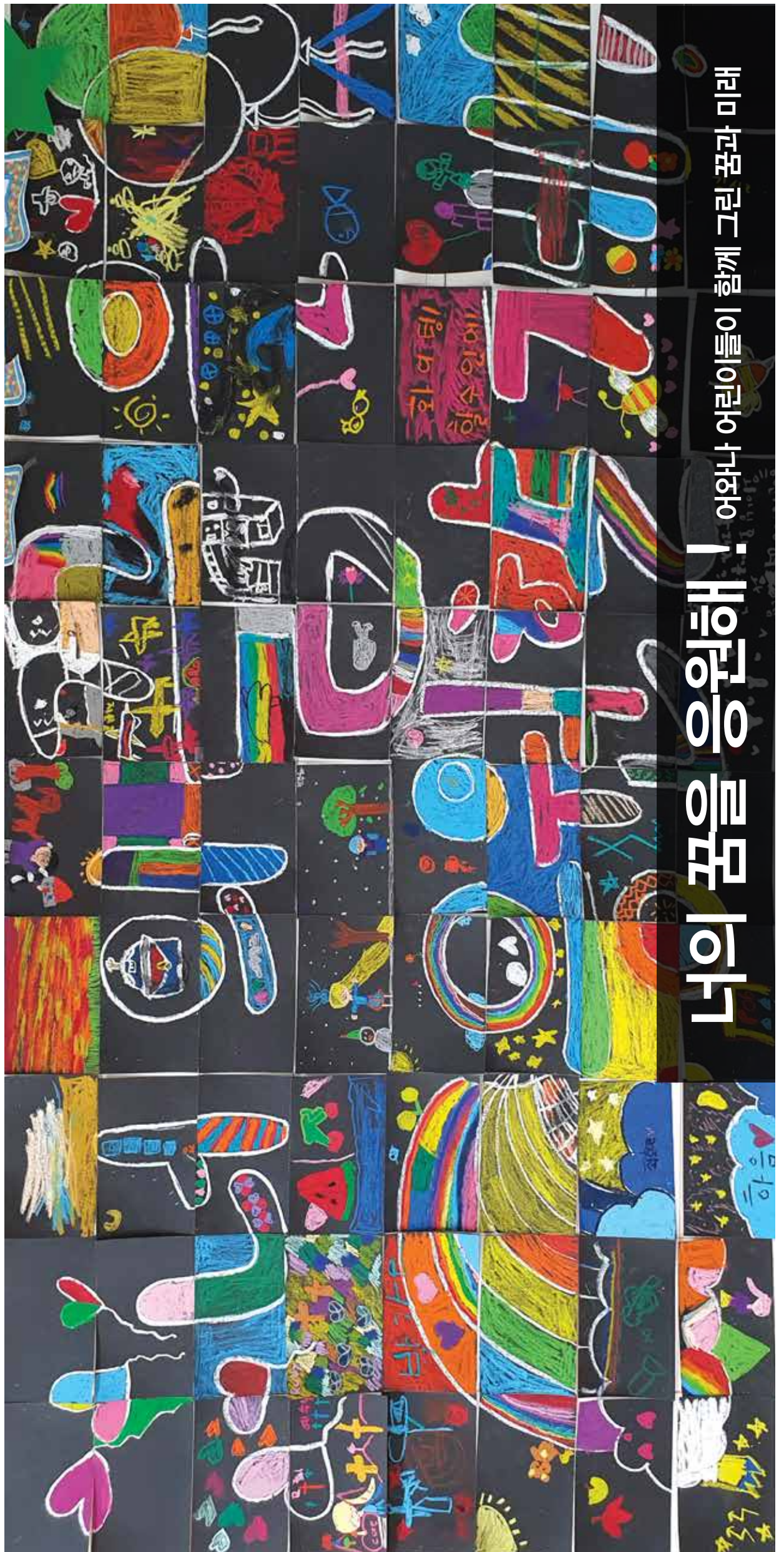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어와나 어린이들이 함께 그린 꿈과 미래
! 영영을 꿈꾸는 너

성서칼럼 돌부리

짐승의 시대, 사람의 형상 (다니엘서 7장)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복음서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 투 테우(basileía tou theou)는 왕권을 뜻하는 바실레이아(basileía)와 하나님의(tou theou)라는 수식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이때 “나라(바실레이아)”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다스림이 미치는 물리적 범위, 즉 영역, 영토를 의미하고, 또한 다스리는 통치 행위와 권력 자체, 즉 왕권, 통치권을 의미한다. 한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말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마치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지구촌 안에 공존하는 여러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대사회의 바실레이아는 한 지역의 헤게모니를 움켜쥔 패권 국가로서의 왕국, 혹은 제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수시대 지중해 세계에서 “나라”는 오직 하나의 왕권, 곧 로마제국의 황제권(임페리움)을 의미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로마의 바실레이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싹트고 펼쳐지는 것을 예감하셨고, 그렇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결따라 자기 삶을 몰아가셨음을 증언한다.

이처럼 성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명확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복음서의 예수 선포를 통해서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성서에서부터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성서의 중심 토대를 이루는 믿음이자 기대이다. 오늘날은 구약성서 다니엘이 그리

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어느 날 꿈속에서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본다(7:1-3). 다니엘서는 각각 사자, 곰, 표범과 비슷하게 생긴 세 짐승을 간략하게 묘사한 뒤(7:4-6), 네 번째로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을 자세하게 묘사한다(7:7-8). 특히, 이 넷째 짐승의 뿔 중에서 앞에 있던 다른 뿔들을 뿌리까지 뽑아내며 나중에 돌아난 “작은 뿔”은 사람 같은 눈도 있고, 또 입도 있어 큰 소리로 말을 하기도 한다(7:8). 참기 괴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후에 천사 같은 존재가 해석해 주듯이(7:16), 이 짐승들은 네 왕조(7:17), 곧 네 나라(7:23)를 뜻하고, 넷째 짐승의 뿔들은 그 넷째 나라의 왕들을 뜻한다(7:22). 다니엘서

의 관심은 확연히 넷째 짐승, 그리고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돋은 작은 뿔에 쏠려 있다(7:19). 이 짐승(의 작은 뿔)이 다니엘서 7장을 기록한 시대를 지배한 힘이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와 같은 유대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상징물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대상이나 상황을 반영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것들을 당시 현실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역사자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이나 여러 뿔이 각각 어떤 나라를 지칭하며 그 나라의 어떤 왕들을 의미하는지에는 학자마다 다소 이견이 있고, 나아가 그렇게 직접적이고 역사적인 지시대상을 갖지 않는 원형적이고 신화적인 혼돈의 힘으로 보는 견해(대표적으로 John J. Collins)도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는 네 짐승이 각각 순서대로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과 이후의 헬레니즘 왕국들을 지칭한다고 보며, 특히 다니엘이 관심을 집중하는 넷째 짐승과 그 머리에 새로 돌아난 작은 뿔이 헬레니즘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국과 그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재위 175 B.C~164 B.C)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기원전 2세기경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북방의 시리아-셀레우코스 왕국과 남방의 이집트-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라는 두 헬레니즘 왕국의 세력권이 충돌하는 접경지였다. 당시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곧 정치적 지도자인 왕 역할을 겸했는데, 두 강대한 헬레니즘 제국 사이에 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며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 기원전 170~169년, “신의 현현(에피파네스)”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셀레우코스 왕국의 왕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내분이 일어나자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 이집트를 침략한다. 이 무렵 유대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에게 거금을 바치고 조공을 약속하며 대제사장직을 수여받은 이아손과 메넬라오스(유명한 그리스식 이름이지만, 둘 다 유대인이며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다)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앞치락 뒤치락하는 정변 도중 의도치 않게 안티오코스 4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안티오코스 4세는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그런데 특

이하게도, 당시의 관례와는 좀 다르게, 안티오코스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를 모독하고 이방 종교의식을 통해 성전을 오염시키기에까지 한다. 이는 종교적 목적에서 행해진 단순한 종교분쟁이 아니었다. 아마도 성전-국가(Temple-State)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을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반란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이다. 엄밀한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마카비서 같은 당시 기록물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고 신성모독적인 성전 침해 행위로 기억한다. 다니엘서 7장이 그리는 넷째 짐승과 그 작은 뿔의 모습에도 이러한 혼탁한 정세와 격렬한 폭력으로 점철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7:19-21).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짐승들의 통치와 왕권 다툼 사이에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본다.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한다(7:9). 그 앞에 수많은 신하가 모여서 있고,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놓여 있다(7:10). 짐승들은 권력을 잃고 불에 던져진다(7:11~12).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보좌 앞에 서고(7:13),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7:14) 곧, 세상의 통치권을 수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장면이다.

학자들은 우가릿 문서들이 발굴되면서 이러한 다니엘서의 묘사 방식이 가나안 신화의 일반적 문법과 구조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바알을 “구름 탄 자(rider of the clouds)”라고 지칭하면서 바알이 구름을 타고 현현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바다”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바알의 주권에 도전하여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혼돈의 신이자 괴물/짐승이다. 또 가나안의 신들의 체계에서는 바알이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인 엘에게 복종하는데, 엘은 “해들의 아버지(근원)(the Father of Years)”라 불린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방식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문자적으로 “날들의 옛적(the Ancient of Days)”이라는 의미로, 그러므로 이것 역시 엘의 별명과 의미와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가나안 신화의 기본 구조를 가져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받으러 나아가는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한

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의 아들”은 그 이름을 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곧 “사람”을 뜻한다. 다니엘은 네 바다 짐승의 광포한 환상 중에 사람 같은 형체가 하나 남게 “나라” 곧 왕권을 받는 장면을 본 것이다. 다니엘서 7장의 환상 장면에서 “사람 같은 이”가 누구인지는 문맥 상으로 다소 명백한데, 바로 이스라엘의 집합적 형상(7:18, 22, 27)이다. 동시에 고대적인 상징체계에서 이는 천사적 존재, 곧 미가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라고도 읽을 수 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며 안티오코스니 가나안 신화니 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까닭은 돌부리 독자들의 현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지, 저 구름 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다에서 올라온 이상한 짐승들과 또 저 기괴한 뿔은 도대체 무엇인지, 마치 암호문 같은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인지 등의 세부 사항에 너무 정신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세부 요소는 어찌 보면 단순하고 당연하게 한 시대와 특정 문학 양식에 속한 문화적 코드이자 문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법을 통해 다니엘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다.

이 세상에 범람한 제국적 권력은, 마치 잔혹한 짐승의 강철 이빨처럼 인간의 삶을 물어뜯고 먹어치우며, 잔해처럼 널브러진 변두리 인생마저 쫓아가 짓이겨 놓는다(7:7, 19). 이 세상은, 이 세상을 굴러대는 거대한 힘은, 흉포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짐승들의 악다구니 한 가운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형상, 그림기만 한 인간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삶이 무참히 무너지고, 사람됨의 의미 자체가 희박해진 시대,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다니엘은 제국의 야수성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참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 다니엘의 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속 깊이 스며들 때, 우리 사회의 모습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선 사람의 형상으로 변모할 것이다.

손경민 목사

사역 소식 | 성극팀, 비전위십팀

여주 소망교도소 공연



성극팀과 비전위십팀에서는 10월 20일에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교도소 예배를 마치며 늘 그랬듯이 수감자들의 눈과 얼굴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감동받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을 공연했는데 성극팀의 집중된 연기와 위십팀의 아름다운 춤의 조합이 연극의 감흥을 더해

주었다. 요셉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어 하나님을 전파하는 내용을 이은석 목사가 먼저 말씀으로 풀어주어서 수감자들이 더 이해가 빠른 듯했다.

주님이 주신 작은 달란트로 그분들에게 작은 소망을 드리는 일에 함께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손경숙 권사/성극팀

구역 소식

안나구역 가을 나들이



10월 31일 목요일 안나구역에서는 가을 나들이로 춘천을 다녀왔다. 안나구역에는 72세 이상 89세까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전까지 안나구역은 2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2019년부터 재편성되어 6교구에 속해있다. 안나구역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 분 구역 식구들이 모두 참석을 하여 구역예배를 드린다. 구역예배 후 치매예방과 선교목적으로



희망하는 분들과 뜨개질을 하고 있다. 함께 동행해주신 6교구 이종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함글함글

사역 소식

호산나 선교무용부 창단 15주년

호산나 선교무용부가 2005년 주님의 교회 문화교실로 태동되어 어느덧 창단 15년을 맞이했다. 현재는 전문선교분과위원회에 속하여 26명의 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 안팎에서 기쁨으로 선교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제1회 무지개잔치 참여를 시작으로 CGN TV, 부활절 예배드라마, 성금요일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등 절기예배에 참여했다. 이 밖에 12단계 성경공부, 늘푸른대학 특강·개강·종강예배, 중보기도와 권사회와 여전도회 예배 등에서 몸 찬양으로 함께 해오기도 했다.

외부사역으로는 국립의료원, 과천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정동교회 등에서



호스피스 사역자들의 격려와 위로의 자리에 함께하였으며 군선교 하나원에서 순수한 믿음의 의지를 접하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고 계심도 알게 하였다. 문경교회와 자매교회인 예제교회, 세린교회, 파주삼성교회에서 국내 선교팀과 함께 놓어준 어르신 초청잔치에 참여하여 성전에 첫걸음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으며, 육군사관학교 기독교신우회와 갈보리교회의 선교활동과 다큐멘터리 〈꺼지지않는 불꽃〉 출연으로 사랑과 감격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음이 큰 감사로 깊이 남아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에 많은 연습으로 지칠 때도 있지만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도 또 새 작품 연습으로 거울 앞에 선다. 26명의 부원들이 서툰 춤을 통하여 매주 월·수요일 모여 서로 손잡고 한마음으로 기도와 찬양 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안팎의 선교활동을 감당하고자 서로 아끼고 보듬으며 세워주는 사랑



마천지역 경로잔치와 복지관 무료급식소 데이케어센터의 어르신들이 우리와 함께 덩실덩실 춤추며 즐기면서 어느덧 웃음이 가득해졌던 그분들의 얼굴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기도 했다.

이가득한 무용부로 성장해 가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1:2)

이혜숙 권사/호산나 무용팀

사역소식 | 어와나

한국 어와나 교사영성 수련회

2019년 10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오 크밸리리조트(강원 원주)에서 제13회 한국어와나 교사 영성수련회가 열렸다.

‘복음, 영원한 축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성수련회는 전국 120교회 1,3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미국 올랜도 비전교회 담임목사인 김인기 목사의 주제 강연과 윤형주 장로의

콘서트, 찬양과 기도회 등으로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영성수련회에서는 어와나 불티단 김난희 교사가 10년 근속 시상을 받아 더욱 뜻깊었다.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매주 470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와나로 모이고 있다. 우리 교회도 5살부터 중3까지 200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 한국 어와나 가나날이 성장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

과 에스터를 길러내는 사역으로 부흥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함줄함울

사역소식 | 어와나

2019 어와나 불티단 스페셜데이

11월 2일(토)에 어와나 불티단(7세~9세)은 “특별한 너의 꿈”이라는 주제로 스페셜 데이 활동을 하였다. ‘만화경 만들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별들을 보고, ‘생명나무상자’에는 좋아하는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적어보며 자신의 소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공원에서의 게임 후에는 ‘치킨

마스크’동화 스토리텔링과 과자 얼굴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 신만의 능력과 꿈을 생각해 보았다. 아이들이 조각별로 그린 그림에는 “너의 꿈을 응원할게”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꿈의 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의 함께 협력해야 하겠다.

함줄함울

사역소식 | 어와나

어와나 티앤티 그랑프리와 말씀학교



어와나 티앤티(10세~13세)에서는 9월 21일(토)에 그랑프리를 주최하였다.

그랑프리 대회는 아이들과 부모님(특히 아버지)이 함께 직접 손질하고 색칠하여 만든 나무 자동차로 트랙에서 스피드를 겨루는 경주이다. 각자 개성을 가진 60대의 자동차들이 출전하여 정비소에서 무게측정과 바퀴점검을 받은 후 토너먼트방식을 통하여 박미정, 홍준기, 박원영 어린이가 트로피를 받았고, 김이루니 어린이가 거북이상을 받았다.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지만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

음의 경주로 이어가는 티앤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한다.

또한 10월 26일(토)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울,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학교가 열렸다. 1~4계명까지는 그림과 연극 등을 통한 조별발표로, 5~10계명까지는 코너학습(도둑질에 대한 속담초성게임, 거짓말 듣지 않고 진실의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눈가림 게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웅덩이 건너기 게임 등)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함줄함울



사역소식 | 아름다운부모학교

1기 아름다운 부모학교 팝업강의

10월 24일(목)에는 1기 아름다운 부모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팝업강의가 있었다. 정은진소장님(진로와소명 연구소)의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

형 등 기질에 따른 자녀의 특성 및 양육법에 대한 강의와 역할극을 통해 자녀들의 핸드폰 사용에 대한 교육법을 모색해보았다.

함줄함울

영화로 성경 읽기

〈벌새〉, 이 세상을 버티는 작은 날갯짓

모두 블록버스터만 볼 때 숨어서 날갯짓하는 이 작은 영화

벌새라는 작은 새가 있다. 대개 5cm 내외이고 가장 큰 종도 10cm가 안 되는 몸집에, 1초에 60번 날갯짓을 하면서 공중에 머물러 가느다란 부리를 꽃에 넣어 꿀을 빨아먹는다. 비행기술이 뛰어나 새 가운데 유일하게 공중에 정지하거나 후진도 할 수 있는 새다. 1년 전인 2018년 10월, 〈벌새〉(김보라 감독)라는 이름의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었고, 2019년 8월 29일에는 일반 극장에서도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공개된 지 1년 만에 무려 34개의 상을 수상했는데, 그중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부문, 시애틀국제영화제, 이스탄불국제영화제, LA아시안퍼시픽영화제, 키프로스영화제, 베르겐국제영화제, 하트랜드필름페스티벌에서는 경쟁부문 대상을 받았다. 쑥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수상 내역을 공개하는 까닭은, 당연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벌새〉라는 이름의 이 영화에, 그러나 ‘벌새’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관객들은 1994년, 대치동 은마아파트(라고 추정되는)에 사는 14살 중학생의 시선에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고 그런 복도식 아파트에서 한 층을 덜 올라간 줄도 모르고 아래 층 같은 호 철문을 두드리며 대답 없는 엄마를 절박하게 찾는 은희라는 아이. 이 영화는, 그렇게 작은 날개로 전



강남으로 옮겨와서 터를 잡고 상가에서 방앗간을 운영한다. 큰딸은 그런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성수대교 너머에 있는 강북의 학교를 다녀서 아빠의 실망을 산다. 다행히 둘째인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아빠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지만, 그만큼 이기적일 뿐 아니라 때로 동생인 은희를 때리기까지 하는 난폭한 면이 있다.

학교에서 새로 담임을 맡은 선생님은 “노래방 말고 서울대 간다!”라고 구호를 목청껏 따라 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쪽지를 나눠주고 노래방에 가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는 친구들을 ‘날라리’라고 고발하게 한다.

영어공부보다는 만화 그리기를 좋아 하는 은희에게 갓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도 있고, 한문학원을 같이 다니는 절친도 있으며, 춤추다가 만난 후배에게 일방적인 짝사랑도 받고 있다. 그러다 그 모두들에게서 서로 다

의 이유는 있지만, 경계를 오가는 이 느닷없는 변덕들을 은희는 이해할 수 없다. 이 혼란스러운 시절에, 은희는 새로 온 한문 선생, 영지를 만난다.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영지는 다른 어른들과 다르다. 은희의 보이지 않는 날갯짓을 이해하는 오직 한 명의 어른이다. 영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만화를 그리는 은희를 응원해준다.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 중인 사정은 끝내 드러나지 않지만, 은희와 절친이 다투고 서먹한 어느 날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불러준다. 공장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잃은 날 마시는 쓴 소주 한 잔을 표현한 이 노래는, 은희는 모르고 영지는 알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다.

“내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라는 은희의 질문에, 영지는 내 의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을 보면 힘이 난다고 말해준다. 병원으로 찾아온 영지는 은희에게 “너 이제 맞지 마. 누구라도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 절대로 가만있지 마. 알았어? 약속해.”라고 말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 은희의 가족은 모두 강북의 학교로 버스를 타고 갔던 언니를 걱정한다. 다행히 언니는 무사했지만, 은희가 찾아간 영지의 집에서 영지 엄마는 말한다.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니?” 은희와 세상을 이어주던 사람, 영지는 무너진 성수대교와 함께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세상을 일깨워주었던 이들은 왜 일찍 떠나셨을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성장기의 한

아이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크고 작은 파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금의 과장도 없이 보여준다. 마지막 장면,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학교에 모인 여러 친구들 앞에서 은희는 주변을 둘러본다. 비로소 혼자 떠나는 여행, 그 앞에 펼쳐진 삶의 여러 표정들을 훨씬 성숙해진 눈으로 관찰하는 은희는 이제 좀 더 자랐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견뎌내면서 그 작은 날갯짓으로.

그러나 이 아이를 자라게 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던 영지 선생님의 나직한 목소리를 지울 수 없다. 어떤 면에서, 그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이, 세상의 고단함과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은 세상의 부조리를 짚어지고, 그 부조리를 일깨워주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까닭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신 다음, 이 땅을 서둘러 일찍 떠나셨다. “가장 평범한 소녀의 일대기를 다룬 대서사시”라는 이 영화에 대한 극찬은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다. “개인의 서사가 정치적인 것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인간의 성장을 통해 그 관계망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김보라 감독의 설명을 여기에 붙이는 것은 분명 사족일 터이다. **함글함글**

〈영화로 성경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8년 발표된 〈벌새〉 편입니다.



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세상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14살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노래방 말고 서울대 간다” 와 날라리
이 아이의 부모님은 자녀 교육을 위해

른 이유로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사 고뭉치 언니의 일탈이 계기가 되어 아빠와 엄마가 큰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 그 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고 있다. 모두들 악인도 아니고, 나름대로



알립니다

2020년 주님의교회 캘린더 그림을 찾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매년 12월 다음 해에 사용되는 탁상용 캘린더를 제작해서 교인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교회 슬로건인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에 맞추어, 2020년 캘린더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학생까지, 자신의 집 가정과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을 보내주시면, 미디어관리위원회와 출판홍보부에서 캘린더의 주제에 맞는 그림을 골라 수록하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출판홍보팀

1. 주 제 | 우리 집, 우리 가족

2. 규 격 | 8절 스케치북 크기, 어떤 스타일의 어떤 그림도 좋습니다.

3. 참가대상 | 교회학교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4. 마 감 | 11월 24일(주일)

5. 제 출 처 | 1층 사무실 냉장고 옆 박스

6. 제출요령 | 출품 그림 뒷면에 이름과 연령,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출품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알립니다

함즐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 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즐함울



2019년 제2회 정신청소년포럼 특강

이영표 위원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강연자 이영표 (해설위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강의 주제 생각이 내가 된다
일시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시간 18:00-19:30 (90분 내외 진행)
장소 김마리아회관 대강당
대상 정신여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주님의교회, 지역사회 주민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2019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이웃사랑 음악제

2019.11.20(수) 저녁 7:30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마시오데이



이재희 성가장

피아노 김혜진



오르간 최세라



정신여교 노래선교단



김민정 찬양

출연 주님의교회 마시오데이, 서울대 연세대 금관오중주, 정신여교 노래선교단, 정신여중 예찬사
합연 주님의교회 마시오데이, 소프라노 한혜원, 플루트 송민조
주최 (사)정신여자중·고 / 남녀선교회

알립니다

1. 2020학년도 수능 부모기도회
일시 : 1월 14일(목) 오전 8:30-오후 5:00,
장소 : 신천교회(본관)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29)
※ 식사 및 간식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2. 11월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주님의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 “믿음의 어머니” / 본문 : 눅 1:26-38
일시 : 11월 16일(토) 오전 5:20 대예배실

3. 사역 박람회
당신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시 : 11월 17, 24일(2주간) 로비(1층)
문의 : 류혜경 집사(010.7700.9361)

4. 제2회 정신포럼특강(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강연자 : 이영표(해설위원, 전 국가대표축구선수)
주제 : 생각이 내가 된다
일시 : 11월 22일(금) 오후 6:00-7:30
장소 : 대예배실
대상 : 정신여중고학생, 교사, 학부모, 주님의교회 및 지역사회 주민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5. 전교인 가정 세미나
주제 : 치유와 성화를 위한 ‘기질찾기’
강사 : 김록우 박사(정신과전문목사)
일시 : 11월 24일(주일) 오후 1:00-5:00
장소 : 1층 소예배실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